

# '불교와 현대와 만남' 다각적 노력

결산 '98 불교학술행사

98년 교계 학술은 '불교와 현대의 만남'으로 요약된다. 소장학자들의 연구가 돋보이는 가운데 소규모 열대발표회를 통해 불교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조명해 보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렸다. 또 IMF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불교를 세계에 선보이며 불교사상을 21세기를 선도할 사상으로 제시하는 국제 학술행사가 꾸준히 열려 학문교류, 타학문과의 비교연구 등이 해결과제로 남았다.

△현대의적 접근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며 소규모 연구발표회가 매일 열렸다. 특히 불교사상과 현대의적 접근을 시도한 이러한 형식의 연구발표회에는 어느 대규모 학술대회보다 더 많은 참석자가 몰리기도 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6차례

걸쳐 진행한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학술발표회가 대표적인 사례. 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종교학 불교분과의 '서양철학과 불교사상과의 만남'과 보조사상연구원의 '지불사상의 집중적 탐구' 열대발표회 등이 있다. 이밖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의 '고학력시대의 불교의 진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국난극복을 위한 불교의 자비실천' 등은 경계제위기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석해 본 행사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계를 향한 한국불교 가치관의 혼란, 과학문명의 인간성 침범 등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 불교사상을 제시하는 국제 학술행사가 많았다.

조사선(禪師禪)의 전통을 계승하고 조사선을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사상으로 먼저 주지하기 위해 8월18~21일 고봉총림 백암사에서 열린 '국제 무차선회(無差禪會)'는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여한 공로 최대의 행사였다. 특히 국내·외 16명의 불교 석학들이 조

**성과**  
소규모 발표회 꾸준 소장학자 연구 돋보여

**조사선 전통계승 국제 무차선회 '성황'**

**과제**  
연구주제 편향성 탈피 타학문과 비교연구 발표자 검치기 출연

사상을 재조명한 '한국선 국제학술회의' 등을 교계 최초로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 국제원효학회가 미국종교학회(AAR) 정기학술회의에서 '원효학 연구분과'를 처음으로 설치, 발표회를 통해 원효사상을 선양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와 그리고 동국대와 일본 교토불교대가 공동주최한 '불교에 있어서의 자비-현대사회의 대응' 국제학술세

미나 등도 텍스트 영역화 문제, 불교문화의 전래와 교류 등 한국불교의 연구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학술대회로 평가된다.

△과제  
IMF 체제로 인해 학술단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컸던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여회에 걸쳐 열린 교계 안팎의 학술행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문탐구의 향해를 멈출 수 없다'는 학자들 특유의 고집(?)을 대변해 주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대두됐다. 무엇보다 2~3명의 교수들이 한 달 동안 열린 5~6회의 학술행사에 모두 참가, 발표자가 특정인들로 한정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잦은 발표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잦은 발표로 인한 내용 부실과 소장학자들의 기회 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특정 교파와 인물에 연구주제가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 연구영역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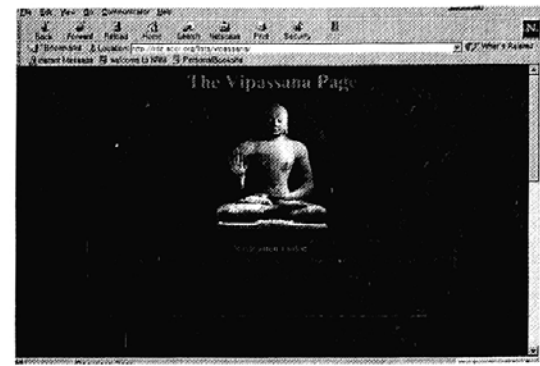
이밖에 학회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표자 및 발표장소가 특정 학교로 한정되고 있는 폐단을 국

**98년 학술행사 일정**

- 2월 '보조의(법집법행법집요법인사기)연구'
- 3월 '백용성 스님과 불교계 독립운동' '역경의 문제와 발전과제'
- 4월 '고학력시대의 불교의 진로' '불교와 인터넷'
- 5월 '서양철학과 불교사상의 만남' '종교문화에서 의례가 차지하는 의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총 6회) '근대 한국종교 개혁신상'
- 6월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 7월 '21세기 승가상 정립과 강연의 역할'
- 8월 '국제 무차선회' '고려대장경'에 나타난 범어문법 '21세기 문화전환과 대중전환' '발해문화 국제학술회의'
- 9월 '문화재 보존위한 한·중·일실지' '한·중 전통문화' '현대사회의 정토신학' '불황시의 제정' '선불교의 사리법' '21세기 한국불교의 좌표' '불교의 자비-현대사회의 대응' '21세기 종교는 무엇인가'
- 11월 '화엄사상 학술발표회' '원효학 특별분과 발표회' '원효의 교학과 통일이념 연구' '다종교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 '금신사 개신 1400주년 학술세미나'
- 12월 '인도철학연구발표회' '불교의 종교적 고찰'

복하고 학술적 교류와 학문간 비교연구 활성화가 앞으로의 과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위빠사나 페이지

## 세인트존스대 종교학연구소서 개설 여성·동성연애 등 주제로 DB구축

남방불교에서는 '여성'과 '동성연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인터넷에 개설된 상좌부 불교사이트를 'woman(여성)'과 'gay(동성연애)' 등의 색인으로 검색하면 '위빠사나 페이지(Vipassana Page)'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불교학연구소 카렌 에드류 소장(종교학 교수)의 '상좌부 불교의 여성 문제', 영국 옥스퍼드대학 칸다시리교수(종교학)의 '가없는 사랑', 아웅산 수지여사의 '명상과 희생의 가치' 등이 제공된다.

팔리어 경전에서 여성에 대해 언급한 구절을 정리·색인한 자료도 열람 가능하다. 현재 담미단나의 생이 기록된 (카라베달라(Culavedalla) 경전), 비구니의 삶과 수행을 기록한 (서리가타(Therigatha)), 타락한 불자들에게 경계를 울렸던 여성 아라한들의 설법이 모아진 (비구니 사유타(Bhikkhuni-Samyutta)) 등이 제공된다.

《동성연애》 전세계 연구 가운데 동성연애자는 10만여명. 과연 불교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곳에서는 불자들이 동성연애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전의 내용을 해석해 놓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미국의 상좌부불교계에서 최근 '상좌부불교는 인류의 모든 문화의 안식처·보호처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좌부 선원에서는 매년 20일동안 동성연애자를 위한 명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wysiwyg://107/http://rdz.acor.org/lists/vipassana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부처님의 전도선언 불교의 교육사상'

**박선영교수 주장**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유행(遊行)을 떠나도록 설한 전도선언(傳道宣言)에서 불교의 교육사상을 고찰한 논문이 나왔다.

〈석림〉 제32집에서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과)는 '석존의 전도선언에 나타난 교육사상 시론(試論)'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교사의 모습으로 정의하며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하늘과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박교수는 "전도선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게 교육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의 교화 및 교육의 근본사상이 직접적이고 집약적으로 함축되었다"고 주장했다.

## '범종단 인터넷 포교기구 필요'

김정석씨 '21세기 사이버포교 중요성' 강조

"인터넷을 통한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에서의 인터넷 교육과 신형·전문단체의 웹사이트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 범종단 차원의 통합된 인터넷 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

21세기 정보매체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 활성화 방안 연구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8년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불교 포교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연구'에서 김정석씨(불교대학원 불교학과)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이 이뤄지면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 포교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포교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불교 인터넷 채널을 구축하여 21세기 포교에 있어 전초기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김씨가 조사한 '사이버 세계의 종교별 교세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의 주요 종교별 인터넷 웹사이트 활용현황(조사표본 14,461개)은 기독교(개신교+천주교) 72.0%, 유대교 8.3%, 불교 2.9%, 이슬람교 2.6% 순으로 기독교의 인터넷 활용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 국내의 경우(‘삼마니’ 검색엔진 888개)도 개신교 85.6%, 천주교 6.5%, 불교 6.1% 순으로 역시 개신교와 천주교가 불교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불교 포교 △한국불교의 세계화 △인터넷상에 올바른 불교정보 제공 △사이버 세계의 불교 포교 △불교 인재의 확보 차원 등 인터넷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부터라도 인터넷을 포교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다투다**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 (<http://www.dharm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이 책에서 저자는 '각 존재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횡수만큼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아메바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들이 이같은 과정으로 동물계를 거쳐 인간에 이르기까지 끝마로 올라가는 것이다. (달미와 사담은 동승 보디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가우뚱거리다)

(달미와 사담) "올라간다, 대체 그것은 어디에 있지?"

해설 온갖 존재(현상)란 어느 하나도 진실함이 없건만, 진실한 모습인 듯 그릇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범부들이 생사의 감옥을 윤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혼돈의 시대, 김윤보 큰스님이 던지는 연꽃 에세이**

#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

인생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내가 괴로움과 시련으로 희망을 버린다면 사람이기를 저버리는 것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듯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괴로운 사람들아!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임을 명심하자. '아득다라 삼막 삼보리'

"스님,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오늘부터 당신의 아들이 되고 아들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효도를 한번 해보면 전생에 당신이 아들에게 진 빛을 받았는지 알겠어요?"  
"예, 스님, 저 아이만 좋아한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착심으로 인해 한이 났었으면 자식에게 자의 노릇을 하면서 효도까지 하겠다고 할까?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방법을 말했다.  
- 자식에게 효도하는 부모가 편하다 중에서

김윤보 (자유산 대홍사 조식·영봉종 중경)/신국판 336쪽/값 8,000원

**연속 중판 돌입**

경주시 안강읍 자옥산에 있는 영봉종 중흥사 대홍사(大興寺)

호림출판 TEL 756-0262 FAX 779-0263